

중국 조선족 연구의 한·중 비교: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김예경**

- I. 서론
- II.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및 연구자
- III. 중국 조선족 연구경향
- IV. 결론: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경향의 한·중 비교

본 연구는 한·중 양국간 외교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중국 조선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중 간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북경 현지조사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은 중국 조선족에 대한 관심영역 및 기대치 등 조선족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단일민족국가와 다민족국가라는 민족구성에서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조선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선족은 한·중 관계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닌 중간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생존 공간 및 활로를 개척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갖게 한다.

주제어 : 중국 조선족, 중국연구, 조선족연구, 한중관계, 중국정치외교, 비교연구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과학분야(해외지역연구)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3009).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켜 왔다. 그동안 양국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현안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마늘분쟁과 어업 분쟁,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으로 인해 갈등은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양국이 상호 조율과 이해를 통한 원만한 외교적 해결점을 찾아야만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한·중 양국간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 될 중국 조선족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은 한·중 관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왔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간도 문제 등은 중국 조선족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통일과 조선족의 법적지위, 정체성 문제 등도 한·중 갈등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간 마찰의 가능성이 높은 ‘중국 조선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조선족은 같은 혈통을 공유하는 민족(民族)이며, 중국에게 있어 조선족은 국가의 공민(公民)이자 소수민족(少數民族)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중국 조선족과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인 관계양식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치와 허상은 한·중 관계에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조선족 문제나 역사인식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비해, 중국 측의 입장은 모호하며, 적극적인 대응이나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상호오해와 불

신으로 양국관계가 대립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중 간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중국 조선족을 연구하는데 있어 주된 관심영역 및 관점 등에서 어떠한 경향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인식차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역사인식, 민족의식, 외교행위 등 다양한 주제영역에서의 비교가 시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행연구의 의미로써 한국과 중국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경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경향을 검토하는 것은 현안 분석이나 대책 수립 등 단기적인 해결 보다 좀 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선족문제를 접근하는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축적은 학술적인 조선족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비교연구(comparative approach)는 국내지역연구에 있어 상당히 유용한 연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지역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데 비해 연구 성과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신명순은 “한국의 비교정치학자가 연구한 논문 가운데 1988년에서 1999년까지 아시아권에 관한 284편의 논문 중에 중국을 사례로 한 연구는 70편에 달하지만, 한국과 중국간의 비교분석은 단지 3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신명순 2000). 비교연구는 분석대상 지역의 독자성에 근거한 특수성을 밝힘과 동시에 지역간의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해석함으로써 총체성을 한층 명확히 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본 연구는 북경 현지조사 및 인터뷰,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거쳐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경향 뿐만 아니라 주요 연구기관 및 연구자, 그밖에 조선족 관련 인터넷 전문사이트 및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졌다. 또한 언론의 조선족 문제에 대한 보도경향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특히, 이는 최근 동북공정 및 재외동포법 등을 둘러싼 양국간 마찰에 관한 연구성과가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행태 및 내용 등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조선족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및 연구자

한·중 양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족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검토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관심 범위와 깊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조선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기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등을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정책의 흐름 및 주된 관심 영역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및 단체

(1) 한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및 단체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에 중국 조선족만을 전담하는 정책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동포관련 입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외교교통상부 이외에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가보

훈처 등 여러 정부 부처의 활동을 관찰해야 한다. 특히 외교통상부 산하의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외동포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 이사장 이광규)은 1996년 5월 3일 “제1차 재외동포정책 위원회”에서 그 설립이 합의되었으며,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이 공포되고, 10월 30일 발족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사이버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네트워크(Korean.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사회의 실태조사 및 재외동포 연구기반 조성사업, 문화, 홍보, 교류, 경제 및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 그밖에 최근 법무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출입국관리뿐 아니라 국적업무, 난민행정 및 재외동포 정책을 포괄하는 ‘이민국’을 신설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²⁾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학술연구단체로는 최근에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임채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한상(韓商)문화연구단³⁾과 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⁴⁾ 재외한인학회,⁵⁾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소장 이근복 목사)⁶⁾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의 병설기관으로 국내 거주 20만 조선족에 대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족선교복지센터

1)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index.html>

2) 법무부뉴스(2005/6/21), <http://moj.news.go.kr/warp/webapp/home/main>(검색일: 2005. 6. 23).

3)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 조선족의 사회·문화 성격과 민족 정체성 문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크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한국어 교육, 재일 동포 사회의 문제점과 한국 사회, 재미 한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그 현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상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인터넷 소식지. 2004/2. <http://www.chonnam.ac.kr/~cnnews/?action=view&nvolume=24>(검색일: 2005.6.21)

4) 1981년 이후 월간 『해외동포(Overseas Korean Times)』 발행.

5) 1990년 이후 매년 『재외한인연구』 발행.

6) 2003년 10월 9일 출범.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peacemission.or.kr>.

(소장 임광빈)가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중국 조선족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조선족 인터넷 사이트는 조선족 동포 인권 및 관련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과 연변통신(www.yanbiannews.com)이 있으며, 그 외 사이트로는 재외동포나 주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이트로서 Asia Migrants Communities (www.migrantcafe.net)와 북방선교방송(www.twrk.or.kr)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중·미·일 등 지역 연합 사이트로써, 중국 조선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자선단체인 조선족마당(꽃망울회)⁷⁾, 조선족학생 장학단체(재중, 재한, 재일, 재미 유학생 연합)인 진달래마을,⁸⁾ 조선족 어린 학생을 돕는 중국유학생, 조선족교포, 한국인으로 구성된 등불회(cnkr.x-y.net)가 있다.

한국 내 중국 조선족 유학생 단체로는 비교적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21.net, 2004년 11월15일 발족, 회장 연세대 박사과정 오동일)가 있다.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약 10개 대학의 60여명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조선족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하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결속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앞으로 학술교류와 봉사활동 등 재한조선족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7) 2001년 11월에 일본에서 본부를 두고 조선족어린이 조화장학단체인 꽃망울회(www.kcw21.com)가 발족하였다. 현재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 소학교의 30여명 조선족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일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한국 등 지역의 조선족 유학생, 직장인, 한국인,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학지원단체로 성장되었다.

8) 2004년 2월에 조선족산재지역 어린이 후원회인 진달래마을(<http://www.jindalle.net>)이 오사카지역을 중심으로 발족하였으며 이 단체도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등 지역에서 회원들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내 중국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단체의 활동 규모 및 조직력은 아직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본지역을 주축으로 한 조선족 단체의 활동과 비교해 볼 수 있다. 1995년 당시 조선족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천지협회(당시 천지구락부), 1999년 조선족 연구자, 대학원생들이 주체가 된 전문 연구단체인 중국조선족연구회(tokyo.cool.ne.jp/chugokuchyosenzoku)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연구회의 경우는 천지협회와 공동으로 2001년 12월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제1차 재일중국조선족국제심포지움(주제: 21세기 조선족의 발전 및 동북아지역 교류와 발전에서의 역할)을 개최할 정도로 그 역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¹⁰⁾

한국 내 중국 조선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 및 지원단체는 서울조선족교회, 조선족선교복지센터, 중국동포타운신문, 중국동포의집 등이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조선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관련 단체로는 (사)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김해성 목사), 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본부(임진철 목사),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사무국장 손동주), 동북아평화연대¹¹⁾(2001년10월27일 창립, 사무국장 김종현), 재외동포신문(논설위원장 안동일), 푸른아시아센터, 국제민주연대 등이다.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 정부산하 단체인 재외동포재단이 연간 2,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해외동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변 백두산 두레마을(대표 김진홍)이 조선족발전기금회(가칭)에 최근 토지 30만 평(100ha)을 기증하기도 했지만, 기타 단체들의 조선족사회에 대한 지속

9) 2005년 5월25일 오동일 회장과와의 인터뷰 내용.

10) 이와 관련해서 백두호(34세, 일본 동경 유학생의 “일본에서의 우리 조선족들의 현황.” (2005, 『조선족 마당』www.kcw21.com(검색일: 2005.3.19)) 참고.

11) (사)동북아평화연대(2001년10월27일 창립, 2003년6월 외통부에 사단법인 등록)는 1996년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내 재외동포사업국으로서 그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동포 돕기, 중국 조선족 동포 사기피해 문제해결 등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북아평화연대 홈페이지 <http://www.wekorean.or.kr>

적이고 꾸준한 지원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조선족이 주축이 된 단체로 사단법인 재한 중국조선족경제문화발전협회가 설립준비 중에 있는데, 이 단체는 최초의 한국 내 조선족 관련 법인단체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내 조선족의 지위와 이미지 개선 등에 있어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협회의 준비위원장은 조선족 기업가인 리동춘 회장이 담당하고 있다.

〈표 1〉 한국 내 중국 조선족과 재외동포 관련 시민단체

중국 조선족 관련 시민단체	재외동포 관련 시민단체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 조선족선교복지센터(임광빈 목사) 중국동포타운신문(김용필 편집국장) 중국동포의집 (사) 재한 중국조선족경제문화발전협회 (준비위원장 리동춘)	(사)한국와국인근로자지원센터(김해성 목사) 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본부(김진홍, 임진철 목사)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사무국장 손동주) (사)동북아평화연대(사무국장 김종현) 재외동포신문(논설위원장 안동일) 푸른아시아센터 국제민주연대

출처: 인터넷 검색 및 인터뷰 자료(2004년 10월 북경, 2005년 5월 서울).

(2) 중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및 단체

중국의 소수민족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당, 정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당내 정책기관은 중공중앙의 직속사업기구인 통일전선공작부(統一戰線工作部, 이하 ‘통전부’)로, 통전부 아래에는 민족공작부(民族工作部)와 종교공작부(宗教工作局) 등 2개의 국(二局)이 있는데, 주로 민족, 종교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연구 및 정책성 건의를 하기도 한다. 중앙정부 내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8개위원회’ 중 하나인 민족위원회(民族委員會)가 있고, 국무부(國務院) 산하 부위원회(部・委員會) 기구 중의 하나로서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

家民族事務委員會)가 있으며, 국무원(國務院) 직속기구로 종교사무국(宗教事務局)이 있다. 인민정치협상회의(人民政治協商會議)에도 위원회 업무 기구로써 민족위원회(民族委員會)와 종교위원회(宗教委員會)가 있는데, 모두 소수민족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당·정 내부에 조선족 업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관련 대표적인 학술연구기관으로는 국무원직속사무단위 중의 하나인 중국사회과학원내에 소수민족문학연구소(少數民族文學研究所)와 민족학 및 인류학연구소(民族學與人類學研究所, 이하 '민족연구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¹²⁾ 민족연구소는 민족관련 제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국책연구소로, 〈민족연구(民族研究)〉, 〈민족언어(民族語言)〉, 〈세계민족(世界民族)〉 등 대표적인 민족관련 학술지를 발간하며, 정기적으로 〈중국민족연구연감(中國民族研究年鑑)〉을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연구소 산하에는 세계민족연구실, 민족이론연구실 등 약 11개의 연구실과 몽고학연구중심(蒙古學研究中心), 장족역사문화연구중심(藏族歷史文化研究中心) 등 약 12개의 학술단체가 소속되어 있지만, 조선족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나 학술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관련출판사 현황을 보면, 민족출판사(民族出版社), 중앙민족대학출판사(中央民族大學出版社)가 가장 대표적인 출판사이며, 그밖에 중국장학출판사(中國藏學出版社), 내몽고과학기술출판사(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서장인민출판사(西藏人民出版社), 광서민족출판사(廣西

12) 민족연구소는 1962년 설립되었고, 약 74명의 고급연구원(高級研究員)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연구방향은 민족이론, 민족정책, 민족관계, 민족법제, 세계민족문제, 민족사회와 경제 및 문화, 민족의 역사, 언어, 문자와 문헌 연구 등 민족과 관계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民族學與人類學研究所 www.cass.cn/minzusou/ (검색일: 2004.10.5).

民族出版社), 녕하인민출판사(宁夏人民出版社), 신강인민출판사(新疆人民出版社),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등이 있다. 이 중에, 조선족 관련 전문 출판사는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1976년 성립)로써, 131명 직원 전원이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어 편집실과 한어편집실이 있고, 『銀河』(격월간), 『花叢』(격월간)을 발행하고 있고, 이미 약 1,80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¹³⁾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관련 출판사인 민족출판사와 중앙민족대학출판사는 매년 다수의 소수민족관련 출판물을 내놓고 있지만, 조선족 관련 출판물은 극히 적으며, 민족출판사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조선어로 된 책이 약 9권,¹⁴⁾ 한어로 된 책이 약 4권¹⁵⁾이 출간된 것이 고작인데, 대부분이 문학이나 언어 관련 서적이다. 조선족자치주인 연변(延邊)의 경우는 조선어로 된 잡지는 『연변문예』, 『소년아동』, 『주부생활』, 『연변교육』, 『재정과학』, 『청년생활』, 『청년과학』 등이 있으며, 조선어 일간지는 『연변일보』 이외에도, 『종합주보(綜合周報)』, 『조선족중학생보(朝鮮族中學生報)』가 연변일보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관련 대표적인 잡지는 국가민족사무위의 기관지인 『중국민족(中國民族)』이다. 『중국민족』은 1957년에 창간된 『민족단결(民族團結)』이 2001년에 개칭된 것으로, 중국에서 유일하게 소수민족을 전문으로 다루는 중앙급 월간지이며, 5종의 언어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조선어가 포함되어 있다. 기타 4종 언어는 한어, 몽고어, 위구

13) 중국출판공작협회민족공작위원회(中國出版工作協會民族工作委員會)의 자료, 『東方民族网』, <http://www.e56.com.cn/>(검색일: 2005.5.5).

14) 『緬懷朝鮮族文壇兩代巨匠』, 『將心比心』, 『朝鮮語概論』, 『朝鮮韓國當代文學概論』, 『新婚姻法指南』, 『袖珍英漢韓語詞典』, 『朝中詞典』, 『中國朝鮮族新聞出版學術論文集』, 『二十世紀中國朝鮮族音樂文化』 등. 『東方民族网』http://www.e56.com.cn/publish/publish_main.asp (검색일: 2005.5.5).

15) 『朝鮮族雙語現象成因論』, 『龍井市朝鮮族卷』, 『朝鮮族』, 『朝鮮族名詩』 등. 『東方民族网』http://www.e56.com.cn/publish/publish_main.asp(검색일: 2005.5.5).

루어, 하사크어 등이다. 『중국민족』은 인터넷 사이트 『中國-民族网(56-china.com.cn)』(2000년 10월 개통)을 운영하고 있다. 민족출판사(民族出版社)도 『東方民族网(www.e56.com.cn)』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7월에 개통되었고, 민족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조선족에 관해서는 오프라인의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 활동 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중국 조선족이 주축이 된 인터넷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표 2〉 중국 내 대표적인 중국 조선족 관련 사이트

기관사이트	공익사이트
흑룡강신문사 www.hljshinmun.com 중국국계방송국 kr.chinabroadcast.cn 연변대학 www.ybu.edu.cn 장백산 jangbaeksan.com 흑룡강코리언(흑룡강방송국) www.873k.com 연변인민방송 www.yb983.com 연변주인민정부 www.yanbian.gov.cn 연변과학기술대학 www.yust.edu 중국동북경제무역연구소 www.cnkr21.com	조선족30~40대들 www.korean3040.com/user 중국조선족학생센터 www.ksc.com.cn 가이드차이나 www.guidechina.cn * 차이나코리안닷컴 www.china-corean.com 우리학교 ourac.com 중국조선족음악 www.jdmusic.wo.to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문화산맥] koreancc.com
문학 및 작가관련 사이트	커뮤니티
도라지잡지사 www.doraji.org 중국연변작가협회 ybwriter.com 김학철문학연구회 www.kimhakcheol.com 우리동네 문학동네 www2.yb.jl.cn/woori 연변문학 www.ybmh.com 료동문학 www.ld-mh.com	케이콜 www.kcoll.com/ e-친구 www.e-qingu.com 모이자 moyiza.net

출처: 百度 및 인터뷰 자료(2004년 10월 북경) 참고

주: * 2003년 1월 9일 출판, 상임집행회장 및 법인대표 리동춘(李東春) 흑룡강성 백두산그룹 이사장, 제9기 전인대 대표

** 1996년 6월 28일 발족, 회장 조성일(趙成日) 전 연변작가협회 주석

차이나코리아닷컴(중국조선족닷컴)은 2003년1월9일 정식 출범했으며, 조선족관련 인터넷 사이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인터넷 네트워크이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회, 경제, 문화활동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선족공동체의 재정립’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차이나코리아닷컴의 조직구성을 보면, 명예고문에 조남기 전 정협부주석이 위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영태(전 인민해방군 공군 부사령원, 전인대 상무위원), 박문일(전 연변대 총장), 서영섭(중앙민족대학 교수), 조성일(연변조선족문화발전 추진회장), 황유복(중앙민족대학 교수), 김병호(중앙민족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타 자문위원은 북경과 각 성, 시, 현의 당정 민족간부, 각 계각층 대표적 지성인, 기업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위원단은 연변, 흑룡강, 요녕, 길림신문사, 중국민족, 경제생활잡지사 사장 등 각 계층과 분야별지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¹⁶⁾

그밖에도 상업적 목적을 가지며, 검색순위가 비교적 높은 조선족 사이트는 연변창구(kr.yb.jl.cn), 엔지넷(www.chinamang.com), 청도타운(www.qdtown.com), 차이나싸이(www.chinasai.com), 하오우산둥(www.haoshandong.com) 등이 있다.

중국 내 조선족 관련 단체는 매우 산발적이라 그 규모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조선족 단체로는 김철 시인이 대표로 있는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소나 북경의 조선족 장학생을 돕는 애심장학회, 연변지역의 연변작가협회, 연변조선어학회 등이 있으며, 2004년12월17일

16) 그밖에 이현덕(중국과학화평촉진회상무부회장), 김일광(화공대 교수,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강경산(중국 공정원 원사), 정순주(전 중국인민해방군 소장), 허상림(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비서장), 김록송(전중국과학원생물물리연구소연구원,교수), 최웅제(전 북경시민위 처장), 방학춘(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문화사 사장), 손동식(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이사장, 전 연변대 총장), 남영전(문학계대표), 박민자(여성계대표), 안성재(북경대학 생명공학원 교수), 이춘화(심양 조화집단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차이나코리아닷컴 사이트 소개” <http://www.china-corean.com/bbs/zboard.php?id=show> (검색일: 2005.5.3)

에 설립된 연변동북아문화연구원,¹⁷⁾ 요녕의 철령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 협회,¹⁸⁾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¹⁹⁾ 심양시조선족교육협회,²⁰⁾ 흑룡강성조선어학회, 칭다오조선족기업협회 등이 파악되고 있는데, 대체로 경제, 교육 및 문화단체 등 비정치적 성격의 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조선족의 지위 문제, 한국과의 관계, 동북지역의 분리 독립 등 정치적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조선족 사이트 가운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강하게 성토했던 ‘중국조선족학생센터(中國朝鮮族學生中心, www.kssc.com.cn)’의 폐쇄 보도는 중국 조선족이 그동안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자신들의 민족적 역사적 견해를 밝히고 문제해결 방법을 놓고 활발하게 논쟁을 벌인 일례라고 할 수 있다.²¹⁾

17) 원장 림연, 동북아문화연구원은 범한족문화권에서의 자기의 문화창조, 중국조선족의 문화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취지를 밝히고 있다. 『차이나코리아닷컴』 2004.12.21 http://www.china-corean.com/bbs/zboard.php?id=zayanbian&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8(검색일: 2005.5.1).

18) 2004년 7월 18일 발족, 『차이나코리아닷컴』 2004.7.6. http://www.china-corean.com/bbs/zboard.php?id=zaliaoning&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검색일: 2005.5.1).

19) 정식명칭은 심양시 조선족경제문화기업가협회, 2004년5월9일 출범, 설립당시 194개 기업이 가입, 『차이나코리아닷컴』 2004. 5. 15. http://www.china-corean.com/bbs/zboard.php?id=zaliaoning&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검색일: 2005.5.1)

20) 2004년 4월 10일 설립, 『차이나코리아닷컴』 2004.4.17. http://www.china-corean.com/bbs/zboard.php?id=zaliaoning&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검색일: 2005.5.1).

21) “‘고구려사 왜곡’ 비판 조선족사이트 폐쇄”, 2004/8/1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05.5.14).

2. 중국 조선족 연구자

(1) 한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자

한국 내 조선족 연구자를 조사해 보면,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가 층은 비교적 두터운 편이지만, 연구자의 층은 매우 얇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개최된 조선족 관련 공개토론회, 공청회, 국제학술회의 등에 발표 및 토론자로 참가한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좀 더 명확해진다.

2005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주제: 중국 조선족사회 발전과 동북아시대 조선족의 역할)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 측에서는 김진홍(두레공동체운동 대표, 목사), 임채완(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진철(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본부장, 중앙민족대 객좌교수, 목사), 김일남 (사)재한 조선족경제문화발전협회(준) 집행위원장), 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등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비교적 꾸준히 조선족 관련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중국조선족교회의 서경석 목사 등 그동안 조선족의 국적회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던 활동가들이 최근에 관심분야를 탈북자 문제 등으로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조선족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나 활동가의 부재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조선족 관련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한국 학자로는, 강영덕이 조선족 교육과 관련된 논문 3편(1992, 1995, 1999)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김석배가 조선족 문화와 관련된 논문 3편(1996, 1998, 1999), 김재석이 조선족 극문학 관련 논문 4편(1998, 1999, 2000 2편), 서경석은 조선족의 인권관련 논문 3편(1997, 1998, 2001), 심혜숙은 조선족 이주와 관련된 4편의 논문(1991 2편, 1992 2

편), 오상순은 조선족 문학관련 논문 3편(1997, 2000, 2002), 차명숙은 조선족 여성관련 논문 3편(1994, 1995, 1997), 최삼룡은 조선족 설화 관련 논문 3편(1997, 1998, 1999), 최진근은 조선족 언어관련 논문 3편(1996, 1997, 1999), 최홍빈은 조선족 실태와 관련 논문 3편(1997) 등이 있다(KERIS 자료). 그러나, 꾸준한 조선족 연구를 통해, 비교적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있는 연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에 이진영²²⁾은 박사 학위 논문으로 조선족문제를 다루었으며, 조선족 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전반에 관한 논문 및 중국정치외교와 관련된 논문 다수를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재외동포 이슈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최우길²³⁾은 꾸준히 조선족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임채완²⁴⁾도 중국과 러시아의 조선족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왔다.

(2) 중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자

중국의 연구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중국 소수민족연구 권위자인 중

22)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조선족 정책의 기원에 대하여(1927-1949)”(『재외한인연구』, No.9(2000))”, “동아시아에서의 한인계 이민자에 대한 연구(2001. 『재외한인연구』, No.11)”,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2002. 『중소연구』, Vol.26 No.3)”, “한국의 재외동포정책(2002. 『한국과 국제정치』, Vol. 18 No.4)”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23) 최우길 신문대 교수는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1999. 『재외한인연구』, No.8)”, “남북관계와 중국 조선족(2001. 『재외한인연구』, No.11)”,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2001. 『재외한인연구』)”,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변화, 위치와 역할』(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중국 조선족, 그리고 우리의 정책』(2000.세종연구소)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24) 임채완 전남대 교수는 “중아시아 고려인들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성향(1998.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1)”,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2002. 『정책과학연구』, Vol.12)”, “중국 연변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임채완·김경학 공저, 2002. 『대한정치학회보』, Vol.10 No.1)”, “연변조선족의 북한, 통일관 조사연구(2002. 『한국과 국제정치』, Vol.18 No.4)”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의 정신철 연구원, 민족사무위원회 민족연구 중심의 리홍걸 연구원과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한족(漢族)은 물론 조선족 학자 가운데 조선족 문제에 관해 꾸준히 연구실적을 축적해온 학자는 거의 없다.²⁵⁾ 정신철 박사나 리홍걸 연구원도 본인은 중국의 민족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거나 민족이론을 연구하고 있을 뿐 조선족 문제만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차이나코리안닷컴에서 제공한 자료와 현지 인터뷰를 통한 통계에 의하면, 사회과학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족 학자 약 57명 가운데, 소수민족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는 중앙민족대학의 김병호, 황유복, 서영섭 교수,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소의 김강일 교수, 민족사무위원회 정책법규사 민족정책처의 김춘자 연구원, 『중국민족(中國民族)』 조선어 잡지사의 리병태 발행인, 서옥(徐玉) 기자,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화연구소의 윤호림 연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중국의 대표적인 조선족 학자 (사회과학분야)

	국가급기관(國家級机构)		고등교육기관(高等院校)
소속	國務院發展研究中心	전공	정치, 법률
학자	金仁雄 高級研究員	학자	韓大元 교수(人民大學法學院) 金強一 교수(延邊大學 동북아연구소)
소속	國務院國資委研究中心	전공	역사
학자	李明星 國際部部長	학자	俞辛焯 교수(南開大學日本研究中心) 金壽福 교수(上海復旦大學歷史系)
소속	中國社會科學院	전공	경제

25) 2004년 10월 북경 인터뷰, 정신철 박사는 중국 중앙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족 가운데 조선족을 연구하는 학자는 전무하다고 답변했음을 밝히고 있다.

학자	金熙德 日本所 對外關係室 主任 韓鎮涉 亞太所 朝鮮半島研究中心 主任 李相文 亞太所 高級 研究員 朴健一 亞太所 朝鮮半島問題研究中心 執行主任 朴光姬 亞太所 助理研究員 金英姬 亞太所 助理研究員 鄭信哲 民族研究所 研究員 尹虎彬 民族文學研究所 研究員 천옥화 助理研究員	학자	조봉빈 교수(吉林大學) 石柱鮮 교수(吉林大學) 金鳳德 교수(東北財經大學國際經務學院) 金喜在 교수(東北師範大學 國際工商管理學院) 金明善 교수(遼寧大學國際經濟學院) 李柱錫 교수(上海財經大學) 金哲松 교수(中央財經大學經濟系) 金 浩 교수(河北工業大學經濟研究所)
소속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분야	문학
학자	리창한 고급연구원 김진기 고급연구원	학자	동장성 교수(동북사범대학 중국류일학 생 예비학교) 金謙廉 교수(大連翻譯學院) 安炳浩 교수(北京大學東方學系朝鮮語) 文日煥 교수(中央民族大學語言文學學院) 李岩教 교수(中央民族大學文藝研究所) 廉光虎 교수(青島大學朝鮮語系) 鄭仁甲 교수(清華大學中文系) 채미화 교수(延邊大學中文系) 金寬雄 교수(延邊大學 比較文學與文化研究所) 孫勇進 박사
소속	中央黨校	분야	민족
학자	최용수 교수 趙浩吉 박사	학자	金炳鎬 교수(中央民族大學) 黃有福 교수(中央民族大學) 서영섭 교수(中央民族大學)
소속	國家民族事務委員會	분야	기타
학자	李紅杰 民族研究中心 研究員 金春子 政策法規司 民族政策處 리병태 『中國民族』조선어 발행인 徐 玉 『中國民族』조선어 기자	학자	윤 호 교수(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안호삼 박사(남개대학) 리원길 교수(중앙민족대학) 태평무 교수(중앙민족대학) 김경일 박사(북경대학) 김 훈 박사(북경대학) 박충록 교수(북경대학) 리선한 교수(북경대학) 최응구 교수(북경대학) 리춘호 박사(북단대학) 방수옥 교수(북단대학) 李振山 박사(牡丹江師範學院副院長)
소속	국가 상업부 국제경제연구원		
학자	吳德烈 연구원		

출처: 차이나코리아닷컴 검색 및 인터뷰 자료(2004년 10월 북경, 2005년 5월 서울).

주: * 상기 연구자들의 소속 및 지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그밖에 조선족이면서, 한국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비교적 잘 알려진 학자로는 김병호(金炳鎬),²⁶⁾ 황유복(黃有福),²⁷⁾ 정신철(鄭信哲),²⁸⁾ 방수옥(方秀玉),²⁹⁾ 김강일(金強一)³⁰⁾ 등이 있다.

중국 내 조선족으로 당 중앙에까지 진출한 정치인은 조남기(趙南起, 27년생, 제9기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인민해방군 전 상장), 리덕수(李德洙, 43년생, 16기 당 중앙위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전철수(52년생, 全哲洙, 16기 당 중앙후보위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은 조선족 정치가로서 출세했기 때문에 조선족 사회의 자랑이기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조선족의 지위와 권익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현재 중국 조선족 가운데 지도층 인사로 리동춘 회장(5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 회장은 현재 (사)재한 중국조선족경제문화발전협회의 준비위원장이며, 9기 전인대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자, 흑룡강성 백두산 그룹의 이사장이기도한 기업가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정재계 인사들과 고른 인맥을 가지고, 가장 선도적으로 조선족 공동체의 재편성에 앞장서며, 조선족의 이미지를 재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른바 조선족 사회에서는 민족지도자로서 알려져 있다.

-
- 26) 김병호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국내 학술지에 논문 “중국 조선족의 사회경제문제(『민족과 문화』(1997))”, “중국의 민족이론정책과 법률에 있어서의 연변 조선족의 지위(『평화연구』, Vol.8 No.1(2000))” 외 다수를 발표했다.
- 27) 황유복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아세아문화연구』에 논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중국 조선족의 교육(1996)” (Vol.1)과 “한·중수교와 조선족의 미래(1997)” (Vol.2)을 발표했다.
- 28) 정신철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에 단행본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모시는 사람들, 2004), 『중국조선족』 (신인간사, 2000)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 29) 방수옥 복단대학 교수는 『민족발전연구』에 논문 “중국조선족과의 협력관계 및 남북통일 (1999)” (No.3),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연변조선족사회(2000)” (No.4), “한민족공동체와 중국조선족사회(2001)” (No.5)을 발표했다.
- 30) 김강일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소 교수는 국내 학술지에 논문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Vol.3 No.1(2000))”, “연변조선족의 대 남북한관계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화연구』, Vol.8(2000))”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

III. 중국 조선족 연구경향

중국 조선족의 연구경향 분석은 한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www.riss4u.net), 중국은 중국학술정보원(CNKI, Chine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www.cnki.net)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KERIS는 전국 420여개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정보가 검색가능하다.³¹⁾ 한국의 조선족 연구에 대한 추세 및 동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국내 각 도서관의 통합검색 결과, 검색어 ‘조선족’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단행자료 22건, 학술논문기사 150건, ebook 1건의 결과가 검색되었다면, KERIS에서는 단행본 555건, 학술지 2건, 학술지논문 353건, 학위논문 38건의 결과가 검색되었다.

중국의 조선족 연구에 대한 추세 및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국 정부와 청화대학(淸華大學)이 1998년에 공동으로 구축한 중국학술정보원(CNKI)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CNKI가 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신문보도문, 주요회의문 등을 총망라한 약 2000만 건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권위 있는 학술데이터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지분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의학학, 교육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분류를 따른다면, 조선족

31) 국내 1,100개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수록된 64만건의 논문, 전국 100여개 대학도서관이 수여한 석·박사학위 논문 20만건, 국내 420여개 대학/전문도서관이 소장한 620만건에 대한 단행본 및 비도서자료(CD-ROM, 비디오 등)를 수록하고 있다. KERIS http://www.riss4u.net/etc/guide/int_search.jsp(검색일: 2004.10.1)

문제에 대한 연구동향과 현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표 4>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주제를 묶어 분류하였다.

〈표 4〉 한·중 관계에서 중국 조선족과 관련된 주요 쟁점

분류	주요 쟁점
조선족 정체성	민족의식, 한국관 등
중국의 조선족 정책	소수민족정책
중국 조선족 역사	조선족 개항, 간도, 고구려사 문제 등
조선족 문화	문학, 민속, 음악 등
조선족 사회	조선족 공동체 해체 문제 경제, 지역, 인구, 여성, 종교, 언어, 교육 등
한국과 조선족	불법체류 및 사기피해, 재외동포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
남북관계와 조선족	남북교류 및 통일에서의 역할 한민족공동체 형성에서의 역할
한중관계와 조선족	경제협력 및 외교적 역할

1. 한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경향

KEIRS를 통한 조선족(혹은 재중동포)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결과,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0~2005년 기간동안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논문 총 319편, 학위논문 총 162편, 단행본 총 119편 가운데, 조선족 문화(학술지논문 25.3%, 학위논문 27.1%, 단행본 53.7%) 혹은 사회(학술지논문 42.6%, 학위논문 34.5%, 단행본 17.6%)와 역사(단행본 18.4%)와 관련된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지위 및 정책은 그동안 일관되게 연구되어 왔던 주제이며, 한중관계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증연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9년 이후 한중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선족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제를 보면,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유명기(2002)와 임채완·김경학(2002)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나머지 연구들은 한국(북한 포함)에 대한 인식과 의식 조사들이었고, 주로 비교 및 설문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조사대상이 조선족이 밀집한 한 두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자원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역사, 사회, 지리적 환경이 다른 지역의 조선족들도 연구하여야 정체성의 현실 및 형성과정에 관한 입체적 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KERIS에서 검색된 조선족 관련 2건의 학술지 중에 『중국조선족교육(조선족교육잡지사, 월간)』은 중국에서 조선어로 발행되는 학술지이기에, 국내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대중국조선족연구』는 한국의 집문당 출판사에서 발행되기는 했지만, 1995년 1회에 그쳤으며, 이도 중국의 연변인민출판사판의 영인본으로써 발행국은 한국이지만, 사실상 국내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는 조선족 관련 학술지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학술지의 경우는 『재외한인연구』(재외한인연구회 편, 1990년 창간, 연간발행), 『민족연구』(한국민족연구원 편, 1998년 7월 발행, 반년간), 『한민족』(해외교포문제연구소 편, 1972년 발행), 『한민족공동체』(해외한민족연구소 편, 1993년 발행, 연간) 등이 있지만, 조선족 문제만을 특화시켜 다룬 학술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KERIS에서 1990~2005년까지 출판된 ‘조선족’을 주제로 한 단행본은 약 589편이 검색되고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에서 출판된 출판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자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출판, 발행된 단행본은 약 119편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한중관계와 조선족, 혹은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출판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한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경향

분류/ 주제	조선족 정체성	중국의 조선족 정책	중국 조선족 역사	조선족 문화	조선족 사회	한국과 조선족	남북 관계와 조선족	한중 관계와 조선족	기타	계
학술지 논문	19 (5.9)	10 (0.3)	28 (8.7)	81 (25.3)	136 (42.6)	20 (6.2)	18 (5.6)	7 (2.1)	19 (5.9)	319 %(100)
학위 논문	9 (5.5)	5 (3.0)	4 (2.4)	44 (27.1)	56 (34.5)	17 (10.4)	1 (0.6)	6 (3.7)	20 (12.3)	162 %(100)
단행본	2 (1.6)	1 (0.8)	22 (18.4)	64 (53.7)	21 (17.6)	0 (0)	2 (1.6)	7 (5.8)	0 (0)	119 %(100)

출처: KERIS.

언론보도의 경우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검색사이트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www.kinds.or.kr)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검색 대상은 국내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영자일간지,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시사잡지, 전문신문, 방송으로 하였고, 검색어는 ‘조선족’으로 하였다. 기간은 1990-2005년 최근기사까지를 포함하였다. 주된 내용을 보면 재한 조선족의 불법체류, 위장결혼, 사기피해 등 문제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 이중국적문제, 고구려사 왜곡 등 한·중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다양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2. 중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경향

중국의 조선족 연구경향도 한국의 조선족 연구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검토는 학술지논문과 학위논문의 경우는 CNKI, 단행본의 경우는 CNKI가 전문을 제공할 수 있는 단행본 목록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국가도서관과 연변대학도서관의 단행본 목록에서 중복분을 제외하고 검토 분류하였다. 자료를 분류 분석해 보면, 역시 조선족 문화와 사회 혹은 역사에 관한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술

지논문 총476편 가운데, 조선족 사회는 34.4%, 조선족 문화는 30.8%, 조선족 역사는 7.3%에 달했으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CNKI의 우수학위 논문목록 총13편(2000~2004년) 가운데 조선족사회 30.7%, 조선족문화 30.7%, 조선족 역사 15.3%로 표본집단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역시 문화, 사회, 역사 연구에 치중되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행본의 경우는 총139편 가운데, 사회관련 주제가 35.2%, 문화관련 주제가 27.3%, 역사관련 주제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 문화는 민속과 문학(소설 등 포함) 등에 대한 연구가 비중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조선족의 개항 및 역사, 정책과 조선족 공동체 등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고르게 연구되고 있다.

〈표 6〉 중국의 중국 조선족 연구경향

분류/ 주제	조선족 장제성	중국의 조선족 정책	중국 조선족 역사	조선족 문화	조선족 사회	한국과 조선족	남북 관계와 조선족	한중 관계와 조선족	기타	계
학술지 논문	3 (0.6)	20 (4.2)	35 (7.3)	147 (30.8)	164 (34.4)	0 (0)	0 (0)	2 (0.4)	140 (29.4)	476 %(100)
학위 논문	0 (0)	2 (15.3)	2 (15.3)	4 (30.7)	4 (30.7)	0 (0)	0 (0)	0 (0)	1 (7.6)	13 %(100)
단행본	0 (0)	8 (5.7)	31 (22.3)	38 (27.3)	49 (35.2)	0 (0)	0 (0)	1 (0.7)	12 (8.6)	139 %(100)

출처: CNKI, 중국국가도서관(www.nic.gov.cn), 연변대학도서관(www.lib.ybu.edu.cn) 등.

중국의 보도행태는 관방 언론(『일민일보』, 『광명일보』 등)과 조선어 언론(『연변일보』,³²⁾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료녕조선문보』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³³⁾

32)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의 기관신문, 현재 조선어, 한어 두 종류로 발행됨.

33) 중국 조선족 언론(신문 및 방송)의 역사 및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원태(2002)의 논문 참고.

인민일보는 ‘朝鮮族’을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단 한 건의 언론보도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광명일보의 경우, 역사부분은 조선족이 중국의 항일혁명에 참가한 공헌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고, 사회부분은 조선족 관련 다양한 사건 사고 이외에,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의 출국과 함께 조선족으로 인한 해외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한두 건 정도 보도되고 있다.³⁴⁾ 그밖에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문화의 경우는 풍속, 예술 등 문화행사에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이었다. 광명일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같은 민족자치지방에 관한 정책사항 및 인사변동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서부대개발 정책과 변경민족지역과 관련된 내용도 한두 건 정도 보도되었다.³⁵⁾ 그렇지만, 조선족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나, 한·중 관계와 연관된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CNKI의 중국의 주요 신문보도 전문자료(中國重要報紙全文數據庫)를 보면, 문화, 사회와 관련된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민속박람회 등에 관한 보도이외에, 연변조선족자치주 관련 조례 및 법규, 그리고 자치주 공작보고에 관한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CNKI를 비롯한 인민일보, 광명일보에서 한국과 조선족문제, 한·중 관계와 조선족문제와 관련된 보도는 단 한건도 보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관방언론 등을 통해서만 중국정부의 어떠한 조선족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연변일보의 보도를 보면 정책관련 중국의 한국어나 조선어도 아닌 중국조선어규범화³⁶⁾와 관련된 보도와 사회적으로는 조선어열풍에 관한

34) “延邊婦女出國賺錢”, 『광명일보』 1998/11/23. <http://www.gmw.cn/01shsb/1998-11/23/GB/807^SH10-226.html>(검색일: 2005.5.1).

35) “邊疆興旺”, 『광명일보』 2000/11/3. <http://www.gmw.cn/01gmrb/2000-11/03/GB/11^18593^0^GM>(검색일: 2005.5.1).

36) “한국 조선에 완전히 기울지 않는 중국조선어규범화” 『차이나코리아닷컴』 2005.4.11

기사, 그리고 조선족 농촌 사회 해체에 관한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관계와 조선족 부분은 주로 조선족의 경제적인 역할에 관한 기사가 주류였다. 료녕조선문보는 한중관계와 조선족 관련 주로 한국과 료녕성 지역의 경제 및 문화교류와 관련된 기사가 많았고, 북한(조선)과의 경제교역에 관한 기사도 눈에 띄게 많았다. 또한 조선족사회의 해체 문제³⁷⁾, 조선족기업인들의 활동에 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길림신문은 한중관계에서의 조선족의 경제적 역할, 특히 한국기업의 길림지역 투자에 관한 기사가 다수를 이루었고, 북한에 대한 투자관련 기사도 눈에 띄었으며, 역시 사회문제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인력송출, 친척방문, 위장결혼 등으로 인한 중국 조선족 사회의 해체와 농촌의 도시화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조선족 차별문제 등에 관한 기사는 없었다. 흑룡강신문은 중국의 소수 민족문자 언론지 가운데에서도 발행부수가 최다이며, 사회적 영향력도 큰 조선어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흑룡강신문의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역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 조선족들의 해외진출 및 도시진출로 인한 조선족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다룬 기사가 많았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조선족의 귀농현상 및 농촌 후계자들의 성공담에 대한 소개도 빈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china-corean.com/bbs/zboard.php?id=zayanbia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4.

37) “신흥촌 절반이상 농사 한족들이 짓는다,” 『차이나코리아안타깝』(2004.3.3) http://www.china-corean.com/bbs/zboard.php?id=zaliaoning&page=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검색일: 2005.5.1)

〈표 7〉 중국 언론의 중국 조선족 관련 보도 분류

분류/ 주제	조선족 정체성	중국의 조선족 정책	중국 조선족 역사	조선족 문화	조선족 사회	한국과 조선족	남북 관계와 조선족	한중 관계와 조선족	기타	계
* 인민 일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 광명 일보	0 (0)	22 (22.4)	2 (2.2)	29 (32.2)	35 (38.8)	0 (0)	0 (0)	1 (1.1)	1 (1.1)	90 %(100)
*** CNKI	0 (0)	2 (4.4)	0 (0)	13 (28.8)	28 (62.2)	0 (0)	0 (0)	0 (0)	2 (4.4)	45 %(100)
연변 일보	1 (0.6)	3 (1.9)	22 (14.5)	22 (14.5)	80 (52.9)	0 (0)	2 (1.3)	4 (2.6)	17 (11.2)	151 %(100)
길림 신문	0 (0)	0 (0)	0 (0)	4 (5.3)	43 (57.3)	0 (0)	8 (10.6)	20 (26.6)	0 (0)	75 %(100)
흑룡강 신문	0 (0)	0 (0)	8 (6.4)	17 (13.6)	85 (68.0)	0 (0)	0 (0)	9 (7.2)	6 (4.8)	125 %(100)
료녕 조선족 문보	0 (0)	1 (1.1)	0 (0)	8 (9.4)	59 (69.4)	0 (0)	2 (2.3)	12 (14.1)	3 (3.5)	85 %(100)

출처: 한어(漢語) 언론은 CNKI, 인민망(www.people.com.cn), 광명망(www.gmd.com.cn)
참고, 조선어 언론은 연변일보, 길림신문, 흑룡강신문(www.hljshinmun.com), 료녕
조선문보 등의 보도내용을 차이나코리안닷컴(www.china-corean.com)(2004-2005년
보도자료)에서 참고

주: * 인민망(人民網)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인터넷신문, 1995년1월1일 이후 보도자료
** 광명망(光明網)은 『광명일보(光明日報)』의 인터넷신문, 1990년1월1일 이후 보도자료
*** CNKI의 2000-2005년 조선족 관련 주요 보도자료

IV. 결론: 중국 조선족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경향의 한·중 비교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국가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조선족에 대한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경향’을 비교 검토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① 연구기관 비교

한국의 경우는 재한 조선족 문제를 한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재외동포문제나 탈북자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모색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이 주축이 되어 조선족의 지위 및 이미지제고 등을 위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나 재한중국조선족경제문화발전협회(가칭) 등 자발적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지할 사항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한·중 관계를 의식하면서, 중국 조선족만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 등의 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이 주축이 된 기존의 문학과 문화 관련 학술단체나 연구회 이외에,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기업가들의 경제협회가 다수 형성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정치적인 성격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차이나코리아닷컴처럼 조선족 가운데 영향력 있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민족적 입장 등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주제영역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연구자 비교

한국의 경우는 시민단체 등에서 조선족을 지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가층은 비교적 두터운 편이지만, 연구자층은 매우 얇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조선족 문제가 한국사회에 이슈화되면서, 조선족의 인권, 실태,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종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육, 문학, 예술, 의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가 고루 조선족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경우는 현재까지 조선족이나 한족 가운데 순수한 조선족문제만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의 조선족연구에 참여했던 일정 지위에 있는 교수나 연구자 등의 연구를 보면 역사, 문화, 교육 등 그 주제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소수민족간 민족감정을 유발하거나 정치적으로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중 관계에서의 조선족 문제 등 새로운 주제영역을 개발하는 신진 연구자의 발굴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조선족 대학생 등 젊은층이 주축이 된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향후 사회진출을 통해 어떠한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③ 연구경향 비교

한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조선족 문제에 대한 연구경향을 검토해 보면 이론연구보다 현안과 정책지향의 연구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를 보면, 재한 조선족의 불법체류문제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 이중국적문제, 고구려사 왜곡 등 관련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조선족문제가 한·중 관계에서 갖는 민감성으로 인해, 조선족과 한·중 외교의 틀에서 조선족문제를 접근하려는 경향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이나 한국에서의 실태조사 등 실증연구도 꾸준히 연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 연구경향은 연구되고 있는 주제를 보면, 중국은 티벳족, 신장 위구르족, 내몽고의

몽고족 등 변경지역의 민족에 대한 민감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치적인 문제로 극대화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신생민족(新生民族)’인 조선족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며 중국의 항일혁명 및 공산당정부 수립에 대한 공헌을 담은 역사적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최근 한·중 관계의 현안으로 등장한 조선족이 변경민족(跨境民族)으로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담론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조선족이 직접 쓴 조선어(중국식 표현)로 된 저작은 많지만, 중국 민족 구성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漢族)에 의한 조선족 연구는 극히 드물고, 주제도 한정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조선족 문제가 중국의 정치외교적 사안으로까지 발전되기에는 아직까지 비주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8〉 중국 조선족 연구의 한·중 비교

연구 주제	한국	중국
조선족 정체성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정체성	중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중국의 조선족 정책	중국의 강제적인 동화정책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 종족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 경계
중국 조선족 역사	한민족(韓民族)의 이주역사	소수민족의 역사, 중국 역사의 일부분
조선족 문화	다양한 풍속, 풍물, 문화, 음악 등	다양한 풍속, 풍물, 문화, 음악 등
조선족 사회	조선족 사회의 해체 우려	도시화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 우려
한국과 조선족	한국 내 조선족 사회의 적응문제 및 불법체류, 사기피해	중국의 사회적 문제
남북관계와 조선족	남북통일에 있어 조선족의 역할 전세계한민족공동체(네트워크)의 구축	지정학적·민족적 특성을 이용한 중국 동북부 지역의 경제발전 증대
한중관계와 조선족	한중관계에서의 경제적인 공헌	한중관계에서의 경제적인 공헌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경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표 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이 조선족 문제를 인식(관심영역 및 기대치)하는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조선족과 한·중 관계를 주요 테마로 다룬 논문편수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경우도 한·중 관계와 조선족을 테마로 한 논문의 경우 재외동포특별법,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을 때 정책건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심을 가질 뿐, 양국관계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연구하는 태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중수교 13년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족 연구는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일민족국가인 한국과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국의 민족정책을 강제적인 동화정책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어 왔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 조선족을 한국과 중국 양국간에 존재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한민족(韓民族) 편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양국의 민족구성의 차이 등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할 사항은 최근 중국 조선족 스스로가 중국지역에서의 조선족 사회 공동체 문제, 경제 발전, 조선족 사회의 재조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민족정책이나 한·중 관계 등 구조적 현실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 관계에서 조선족은 단순히 관계의 부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생존 공간 및 활로를 개척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참고문헌

- 권중달. 2000.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시각과 올바른 방향: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민족발전연구』. 4호.
- 김병호. 1999. “중국의 민족이론정책과 법률에 있어서의 연변 조선족의 지위.” 『평화연구』. 8.
- 김성호. 1993. “중국 연변대학의 조선족 연구단체 및 학자들.” 『근현대사강좌』. No.2.
- 김원태. 2002. “중국 조선족 언론의 발전 과정과 대 한국관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3집.
- 김태호. 2003. “한중관계 11년과 미래-양적팽창과 잠재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상』. 가을호.
- 박진엽. 2004. “한국 신문의 중국 조선족 관련 보도 분석: 한중수교전후 10여년간 4개 중앙지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홍서. 2001. “‘인식’과 ‘능력’의 차이를 통한 중국외교정책의 유형분석.” 『중국연구』 제28권.
- 설용수. 2004.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미래문화사.
- 신명순. 2000. “한국에서의 비교정치연구의 경향과 과제.” 『연세행정논총』. vol. 25.
- 이광규. 2002. 『격동기의 중국조선족』. 백산서당.
- 이구홍·안영진. 1999. 『재외동포 관련 문헌자료 목록』.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99-1.
- 이규태. 1998. “한중관계에서 조선족문제에 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2집.
- 이동률. 2002. “수교 이후 한중 정치관계의 회고와 전망: 중국외교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95.
- 이수행. 1998. “중국 조선족에 대한 한중양국의 인식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달. 2004. 『조선족 사회와의 만남』. 모시는사람들.
- 이진영. 2002. “한-중 외교관계와 재중동포: 재외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8권 4호.
- 임계순. 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 정신철. 2004.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모시는 사람들.
- 정재호. 2000. “인터넷과 중국정치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 쟁점, 방법 및 교류』. 나남.
- 진용선. 『중국 조선족의 아리랑』. 수문출판사.
- 최우길. 2003. “한중관계와 조선족 문제.” 2003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①(4월 24일). 『격동의 21세기와 세계질서』.
- 王天姿. 2004. “中國朝鮮族民族, 國民意識形成初探.” 『黑龍江民族叢刊』. 第5期.
- 金元石. 2003. “關於中國朝鮮族.” 『中國邊疆史地研究』. 第13卷 第4期.
- 潘龍海·黃有福主編. 2002. 『跨入二十一世紀的中國朝鮮族』.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姜龍范. 1998. “19世紀末20世紀初東亞政治風云與中朝外交爭端.” 『延邊大學學報』. 第3期.
- 國家民委民族問題研究中心. 1997. “對外開放與中國的朝鮮族.” 『民族研究』. 第6期.
- 陳連開. 1995. “中國民族研究的識異與求同.” 『民族研究』. 第12期.
- 金炳鎬. 1994. 『民族理論政策概論』.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1994.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
- 趙延年 主編. 1994. 『論民族問題』. 北京: 民族出版社.
- . 1993. 『當代中國的民族工作(上·下)』.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 何潤. 1992. 『當代中國民族問題的特點和發展規律』. 北京: 民族出版社.
- 田曉岫 主編. 1991. 『中華民族』. 北京: 華夏出版社.
- 費孝通(等). 198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國家民委政策研究室(編). 1988. 『國家民委民族政策文件選集』.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 1986. 『中國大百科全書(民族)』.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1982. 『中國關係史論文集(上, 下)』. 北京: 民族出版社.
- 李維漢. 1980. 『關於民族理論和民族政策的若干問題』. 北京: 民族出版社.
- Teufel, Dreyer June. 1995. “Ethnic Minor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Chapter 13 in *Chinese Political System: Tradition and Modernization*. Prentice-Hall.
- Fong, Rowena. 1994. “Ethnic Relations in the PRC: Images and Social

- Distance Between Han Chinese and Minority and Foreign Nationaliti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13 No.1, Spring.
- Kevin, Platt, 1997, "How China Sees Its Ethnic Separatists Differently."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3.
- Cho, Seung-Bog, 1982. *The Koreans in China and Their Language*, Stockholm: Department of Japanese and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Stockholm.
- Hoffmann, Frank, 1986.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Education and Publishing." *Korea Journal* 26(12).
- Lee, Chae-Jin, 1986. *China's Korean Minority , The Politics of Ethnic Education*,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 Lee, Chae-Jin, 1989. "The Koreans in China: Identity and Adaptation." *Korea and World Affairs* 13(3).
- Lin, Yao Hua, 1993.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Koreans and Other Minority Ethnic Group in Northeast China," *Studies of Koreans Abroad* 3.
- Ma, Qi Cheng, 1993. "The Historical Heritage of Chinese Koreans," *Studies of Koreans Abroad* 3.
- Mackerras, Colin, 1995. *China's minority cultures : identities and integration since 1912*, New York, St. Martin's Press .

ABSTRACT

A Comparative Survey of Chinese Koreans Studies in South Korea and China: Research Institutes, Scholars and Their Trends

KIM, Yeikyoung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This study assumes the rising diplomatic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e ethnic Koreans in China are due to the difference in bilateral perceptions. In order to examine the difference closely, it surveyed research institutes, scholars and their trends of the Chinese Koreans Studies in South Korea and China comparatively. It collected data from field-work researches and interviews in Beijing and Seoul as well as from various on-line resources. Through the survey, it revealed that the difference comes with distinct research interests and prospects of the Chinese Koreans issue in the two countries, and that the difference are due to their distinct structural backgrounds. That is, the fact that Korea has been an uni-ethnic country while China has been a multi-ethnic country leads to the different perceptions.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at the ethnic Koreans in China should not be regarded as a by-product of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ut they should be rather regarded as an independent group of people with their own identity and purpose for exist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 Words : ethnic Koreans in China(Chinese Koreans), Studies on Korean-Chines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hinese Politics and Diplomacy, Comparative Study